

교환학생 보고서

이름	한글	김선호	영문	KIM SEONHO
학과(전공)	신소재공학부		파견 학기	2019-1학기
파견 국가	독일		파견 대학	예나응용과학대학교

❖ 경험보고서는 다음 파견 학생을 위해 A4 3페이지 이상 상세히 기재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환학생에 관심 갖게 된 계기 및 지원 동기

유럽을 좋아했고 교환학생으로 파견가기 전 여행을 한 뒤라서 한 번 더 방문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신청하게 되었다. 애초에 교육방법과 유럽인들의 가치관들에 호기심을 가지고 있던 터라 이번 기회에 외국인 친구도 많이 만들고 본인의 견문도 넓히고자 지원하게 되었다.

■ 출국 전 준비 사항과 주의 할 점(상대교 서류준비, 비자발급 절차, 항공권 구입, 수강신청 및 기숙사 신청 내용 포함)

상대교 서류준비는 어렵지 않다. 교환학생 선발에 합격하고 나면 예나응용과학대학교에 우리학교 국제 교류교육원처럼 각국의 교환학생들을 위해 도움을 주는 office가 있다. 담당자 Robert 선생님이 필요한 서류, 지불해야 할 학기비용, 기숙사 신청방법, 오리엔테이션 날짜, 튜터 배정 등등 여러 가지 업무 특히 교환학생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힘들어 할 만한 정보를 알려주신다. 물론 그 외에 다른 사항도 물어보면 친절하게 알려주신다. 따라서 가기 전 서류 준비해야 할 것은 여권사본 n장, 본인 여권사진, 기숙사 선발완료 사본 1장 정도이다. **여권사본과 여권사진**은 여권분실을 대비하여 여유롭게 준비하도록 하는 것을 추천한다. (비자, 여행 등 필요).

비자는 간단하다. 우리나라 여권은 여권만료일이 1년 이상 남았다면 최대 3개월 유럽 쉥겐조약 국가에 무비자 체류로 머무를 수 있다. 쉥겐 비쉥겐 국가는 초록 창에 검색하면 나온다. 하지만 독일은 쉥겐조약 국가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미리 비자를 신청하여 갈 필요는 없고, 독일에 도착 후 1개월 정도 기숙사, 시내, 친구 등 초창기 문제들이 안정이 되면 마지막 순서로 예나에서 학생비자를 신청하여 처리해도 늦지 않는다. 한국에서 학생비자를 받은 후 독일로 출국 하는 게 마음이 제일 편하겠지만 예나에서 학생비자 받아도 5만원 내외정도로 부담되지 않는 금액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찾아본 정보인데 교내 or 교외 장학금 수령증명서를 비자발급 사무실에 보여주면 발급비를 할인해준다는 글을 보고 가서 나도 인쇄해갔다. 독일 암트(Officer)들은 제각각 요구하는 서류나 처리방식이 다른데 결론적으로 할인을 받아서 싸게 했다. (여권 부착형 스티커 비자 - 40유로 후반)

인터넷으로 슈퍼어konto (blocked account)라는 글을 많이 포스팅 해놨던데, **예나는 비자 발급 시 슈퍼어konto가 필요 없다. 하지만 정책이 바뀌었을 수도 있으니 도착 후 확인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처음 도착할 때 현지학생 튜터는 교환학생들에게 비자, 현지은행 계좌 등 필요한 업무를 도와준다. 하지만 난 N26계좌를 만들어 현지은행 계좌를 만들지 않았다. 비자 발급 때에도 그냥 암트에게 온라인뱅크 내 잔액을 보여주었더니 OK했다.

따라서 슈퍼어konto 걱정은 하지 말고 비자 받기 전까진 안전하게 통장에 돈을 최대한 많이 넣어놓는 게 좋을 것 같다. 안전하기도 하고.

항공권은 왕복은 메리트가 없고 시간만 낭비하는 것 같아 편도로 구매했다. **인천-프랑크푸르트 221,000원(경유2번) 모스크바-인천 410,000원(경유 1번)** 정도. total 65만원 이내로 왕복했다. 한국으로 돌아하는 항공편에 일부러 이스탄불 스탱오버 항공편을 구매해 Turkish Airlines에서 무료로 진행하는 이스탄불투

어를 참가하여 크루즈 타고 저녁도 먹고 버스로 관광도 했다. 편도로 항공권은 편도로 구매해 본인의 여행계획과 예산을 유동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추천한다.

수강신청은 절차가 매우 복잡하다. 이름은 기억 못 하지만 종이서류 절차의 연속이다. 예나응용과학대학교에서 전공과목만 듣고 싶다면 Robert 선생님에게 물어보면 절차를 친절하게 알려주지만 (첫 OT때에도 알려주신다) 예나 시내의 프리드리히 실러 대학교(FSU)에서 영어토론수업이나 문법, 스피킹 수업 등을 수강하고 싶다면

1. FSU홈페이지에 들어가 양식을 인쇄
2. 본인이 수강하고 싶은 과목을 수기로 작성
3. Ernst-Abbe-Platz Mensa옆 건물 5층에 가서 (호수는 기억안남) 수강 희망 과목에 확인 필(도장)
4. 도장 받은 종이 들고 그 앞 건물 3층인가 4층에 가서 FSU홈페이지 임시 ID, PW를 수령
5. 이 ID, PW를 가지고 인터넷 Friedolin (우리나라 수강신청과 비슷함) 에 접속하여 수강신청을 한다.

매우 복잡하다.

기숙사는 보통 Karl-Marx-Allee나 Karl-Zeiss Promenade 둘 중에 하나를 사용하지만 본인이 기숙사 신청할 때 희망 월세를 얼마를 적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다. 본인은 월 209유로 (인터넷 10유로 포함) Karl Marx Allee 1건물에 거주했다. 학교와 거리는 멀지만 낮에는 10분에 한 대, 밤에는 30~1시간에 한 대 정도로 직통트램이 있기 때문에 전혀 불편하지 않다. FSU (Stadtzentrum 트램역)에서 본인 기숙사 (Lobeda west 트램역) 까지 20~25분.

기숙사는 Robert 선생님께 물어보면 친절하게 알려주신다.

■ 파견대학 소개(크기, 지리적 위치, 기후, 주변 환경 내용 포함)

예나 응용 과학대는 FSU보단 작음. 본인이 살던 기숙사(KMA)에서는 트램, 버스를 환승해서 가야함. 시내까지 버스로 10분 정도 소요. FSU는 시내 그트머리에 위치. 본인이 살던 기숙사(KMA)에서는 트램으로 20~25분 환승 없음. 하지만 보통 영어수업이나 동아리 활동 때문에 시내와 FSU를 자주 가는 편.

교통은 매우 잘 되어있고 날씨는 습하지 않아 좋다. 7월 여름에 더울 땀 34~36도까지 올라가기도 하나 그늘에 들어가면 뜨겁진 않다. 겨울은 모르겠음. 생필품 등을 살 수 있는 dm, muller등 시내에 위치하고 장 볼 수 있는 aldi, tegut 역시 시내에 위치해 있다. 본인의 기숙사 바로 앞에는 Netto 마트가 있어서 생활하는데 불편함은 없었다. 하지만 거의 모든 가게가 일요일에 문을 닫는다.

■ 수업 및 학사 관련 사항(수강과목 포함)

FSU가 크기도 하고 위치도 시내와 매우 근접해있어서 영어 수업도 듣고 시내에서 놀기도 할 겸 일주일에 6~7일은 간단다고 보면 된다. 영어 수업도 매우 유익하고 우리나라와 다른 수업방식을 느낄 수 있다. 토론이 기본이며 grammar같은 수업은 당연히 교수님의 판서 중심으로 진행이 되지만 수업 중간에 질문이 전혀 어색하지 않다. 우리도 본받아야 할 점들이 굉장히 많다. 시험은 기말시험 한 번에 수업에 따라 롤(role) 플레이, written test, speaking test 등 여러 가지가 있다. 본인은 B1~B2+ 레벨로 영어 수업을 수강했으며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수준이었다. B2+수업은 처음엔 어려웠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영어실력이 늘면서 잘 참여할 수 있었다.

■ 숙소 및 거주 관련 사항(기숙사비, 생활비 내용 포함)

본인이 어디 기숙사를 쓰느냐, 몇 층을 쓰느냐, 플랫메이트가 몇 명이냐에 따라 기숙사 비가 달라진다. 본인은 시내에서 좀 먼 곳 lobeda지역에 있는 Karl Marx Allee에서 거주, 한달 월세 인터넷 10유로 포함 209유로였다. 하지만 플랫메이트가 적고 시내와 가까울수록, 신식건물일수록 당연하게도 월세는 비싸진다. 생활비는 본인의 소비습관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친구들과 모여 매일 파티를 가는 사람은 당연하게도 생활비가 많이 들 것이며 학교-집 루트만 반복하여 식당 등 소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기본적인 지출만 나갈 것이다. 기본적으로 월 고정 지출은 기숙사비 (209) 공보험 (90) 식비 (40이상) 해서 330이상

고정 지출이었다.

■ 파견대학 국제팀 프로그램/서비스 및 교환학생 활동 소개

교환학생들을 위하여 ESN Jena같은 곳에서 모임을 주최해주기도 하고 맥주파티를 열기도 한다. 클럽에서 모임을 여는 등 교환학생 뿐만 아니라 현지 학생들을 위해서도 이벤트가 많다. 예나 응용과학대에 동아리도 있어서 가입비용을 내고 매주 활동할 수 있다.

■ 학교 부대시설 및 추천 하고 싶은 동아리

학교 부대시설로 클럽이 있다. 보통 학생이 가는 건전한 클럽이고 스트레스 받는 날, 놀고 싶은 날에 클럽 이벤트가 끼어있다면 완벽하게 밤을 즐길 수 있다.

본인은 볼링동아리를 하고 싶었지만, 인원이 다 차서 가입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태권도, 테니스, 축구, 배드민턴 등 거의 대부분의 운동 종류 동아리는 다 있고 헬스, 요가 동아리도 있다.

이참에 본인의 취미활동을 찾아 하나쯤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가입비용이 존재하고 동아리마다 다르다. 볼링은 20유로

■ 문화적 차이 및 향후 파견 학생들을 위한 TIP

교환학생을 왔다면 언제 또 이런 경험을 할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그 순간을 즐기는 것을 추천한다. 본인 같은 경우는 한국 학생들도 많았지만 외국인 친구들과 더 많이 어울리려고 노력했다. 결과로 영어도 많이 늘고 기본적인 독일어도 할 수 있게 되었다.

독일에 왔으니 맥주도 많이 먹어보는 것을 추천한다. 종류가 무궁무진하고 지역마다 다른 종류의 맥주, 지역이름을 따 맥주를 제조하기도 하며 양조장에서 바로 내린 생맥주는 한국에선 경험하지 못한 맥주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 맥주의 견문을 넓히고 오는 것도 좋을 것 같다.

■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느낀 점, 배운 점

이번 교환학생을 통해 더욱 많은 외국인 친구를 사귄 수 있었고, 외국어 실력도 많이 향상되었다.

가장 감명 받았던 부분은 습하지 않은 날씨와 자유로운 수업방식이었고, 가장 아쉬웠던 점은 식당의 비싼 물가와 놀 거리가 많이 없었다는 점이다. 아무래도 예나는 작은 도시다보니 베를린, 프랑크푸르트와 같이 도시적인 느낌보다는 큰 마을 같은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PC방, 게임방 같은 오락시설이 없으니 외국인 친구들과 더 많이 얘기하고 경험을 공유할 수 있었으며 더더욱 친해지는 계기가 된 것 같다. 아직도 연락하는 소중한 친구들을 만들어서 다행이고 행복이라고 생각한다.

■ 기타(사진, 건의사항, 등)

지원금이 기간과 물가에 비해 현저히 부족합니다.